

순천시, 독일과 마그네슘 공동개발 추진

헬름홀츠·폭스바겐 연구소 순천 방문 공동연구 참여 밝혀 해룡산단에 연구센터 만들고 북한과 남북경협사업 연계

순천시가 독일 헬름홀츠·폭스바겐 연구소와 마그네슘 공동개발로 마그네슘 산업의 기반확충에 나선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9일 순천을 방문한 연구소 관계자와 만나 마그네슘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 최대 규모와 높은 기술력을 가진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와 독일 최대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사는 "순천시와 마그네슘 공동연구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와 폭스바겐사의 중앙연구소 관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재료연구소 연구원 등 6명은 지난 29일 순천의 마그네슘 소재 산업에 대해 설명 듣고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 마그네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시는 마그네슘 광폭판재 제조공장이 있는 해룡산단에 마그네슘 소재 산업의 신시장 창출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글로벌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센터는 마그네슘 상용화 문제점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연관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번 독일 마그네슘 연구소 관계자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29일 시청을 방문한 독일 헬름홀츠 연구소와 폭스바겐연구소 관계자들과 마그네슘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순천시 제공>

들의 방문으로 마그네슘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글로벌 연구센터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름홀츠 연구소 마그네슘 센터장인 카이너박사는 "마그네슘 소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바이오, 메디칼, 배터리 등 여러 분야로 활용 폭을 넓히면 미래 소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마그네슘의 미래상에 대해서 말했다.

함께 방문한 폭스바겐 중앙연구소 다비드 박사는 "폭스바겐사는 자동차 경량화와 국제 공동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세계 최대 공정기술 개발 경험을 토대로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시장은 "헬름홀츠 연구소와 폭스바겐 연구소가 참여하는 마그네슘 글로벌 연구센터를 구축해 순천시를 마그네슘 클러스터 거점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마그네사이트가 매장된 북한의 단천지역과 순천 마그네슘 단지가 결합해 남북경협사업과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름홀츠 연구소는 마그네슘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높은 기술력을 가진 독일 국가 출연 기관으로 마그네슘 소재 관련 세계적인 권위기관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봉화산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 공사

감사원 "무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안돼"

순천시에 적정한 조치 촉구

감사원은 순천시가 봉화산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 공사 계약을 무면허·무등록 업체와 11억9000만원에 체결했다며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지난 3일자로 순천시장에게 통보했다.

순천시는 봉화산 둘레길에 국내 최장의 출렁다리를 설치하겠다고 2016년 4월부터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사업비 24억5000만원)를 추진했으나, 작년 12월부터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순천시가 출렁다리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주요자재인 케이블을 분리 발주해 제작능력이 부족한 업체와 계약했으며 인건 주된 70% 이상이 반대의견서를 냈음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교량 등 철구조물을 제작·조립·설치하는 전문공사는 철강재설치공사면허 등을 보유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는 작년 7월 철강재설치공사면허가 없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사와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투자심사를



봉화산 출렁다리 조감도.

다시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다.

순천시는 2016년 '봉화산 둘레길 경관 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에 출렁다리 설치 공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총사업비가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30%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통과 전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적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무면허·무등록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A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서면산단 DSR제강

이웃돕기 성금 1억 기탁

순천시 서면산단에 있는 DSR제강 주식회사(대표이사 홍하중)는 지난 3일 순천시를 찾아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DSR제강 김철 상무이사, 서면지역사회복지회장이 참석했다.

전달된 이웃돕기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발굴 및 지원하는 순천SOS센터 운영 및 명절 위문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DSR제강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10년동안 9억 2000여만원의 성금을 기탁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철 상무이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우수녹색아파트 경진대회

내일 순천시청 대회실시

순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과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해 6일 시청 대회실에서 '2018 우수녹색아파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 및 수도, 도시가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축률과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등으로 1차 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민들과 함께한 친환경 생활 실천 활동을 경진대회를 통해 평가 시상한다.

외부 심사위원 4명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1곳), 우수(2곳), 장려(3곳), 온실가스감축 지속성(4곳)을 선정하고 최고 800만원의 인센티브와 표창을 하게 된다.

김태성 순천시 환경보호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

순천 올 10대 뉴스 1위 '담사르 습지도시 인증'

2위는 선암사 세계유산 등재

순천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순천 10대 뉴스'를 선정한 결과 '담사르 습지도시 세계 첫 인증'이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2018년 순천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10대 뉴스 투표는 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도입한 순천시 카카오톡과 시홈페이지, 현장 투표(시청, 청춘창고, 문화건강센터) 등을 활용했다.

시민들은 시에서 미리 제시한 20건의 시정성과 중 1인당 5개 항목을 선정했다.

선정결과 1위는 '담사르 습지도시 세계 첫 인증'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담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흑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주민의 노력, 습지보호지역의 확대 및 습지 복원 등의 노력을 알렸다.

2위는 선암사의 '세계유산' 등재였고, 3위는 올해 3월부터 시행한 전국 첫 '초등생 100원 버스 운영'이 선정됐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 지방세 '카카오옥' 간편납서비스 시행과 순천만국가정원 4년 연속 관람객 500만 달성 등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한 정책과 실생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올해의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허석 순천시장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높이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환경 오염·소음 등 이유 주민들 반대에

동물보호센터건립 부지 원점서 재검토

순천시 주민 의견 최우선 반영

순천시가 환경오염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던 동물보호센터 건립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승주읍 유흥리에 설치하려던 동물보호센터 건립계획과 관련 자료를 내고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 반영해 동물보호센터 건립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갈수록 늘어나는 유기동물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해 국비 포함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승주읍 유흥리에 분양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갖춘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소음과 주변지역 오

염 등의 이유로 동물보호센터 설치 예정지 주변 주민의 반대에 직면했고, 지역 동물보호단체 마저 시내 중심지에서 너무 먼거리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허석 시장은 지난 29일 해당 마을을 직접 찾아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설득에 나섰으나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반대사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옛 전경부대 부지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주민이 반대하고, 환경부도 수변구역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만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겨울기차여행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 해외여행 · 국내여행
-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 허니문 · 단체여행
- 골프투어 · 기차여행

www.daewontour.com

겨울 전세열차 상품 ※1인 이상 출발합니다.

- 1 태백산등산 · 하이원스키장 곤돌라 기차여행(무박 2일) | 1월 11일, 18일, 25일(금) | 120,000원
- 2 정동진일출 · 하이원스키장 곤돌라 기차여행(무박 2일) | 1월 11일, 18일, 25일(금) | 120,000원

겨울 국내여행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 1 정동진 신년 해맞이 고속열차여행(무박 2일) | 12월 31일(월) | 110,000원
- 2 부산해운대 해맞이 버스여행(당일) | 12월 31일(월) | 40,000원
- 3 정동진 · 바다부채길 · 월정사무궁화호+고속열차여행(무박 2일) | 12월 21일, 28일(금) | 110,000원
- 4 선자령 눈꽃 트레킹 버스여행(당일) | 12월 29일(토), 1월 5일(토) | 50,000원
- 5 눈 덮인 인제 자작나무 숲 · 곰배령 트레킹 버스여행(1박 2일) | 12월 22일(토), 1월 5일(토) | 180,000원~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세기 해외여행 상품

- 1 코타키나발루 (5일/6일) | 12월 23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목, 일요일 출발 | 599,000원~
- 2 다낭 (4일/5일) | ~2019년 3월 31일까지 화~일요일 출발 | 649,000원~
- 3 방콕&파타야 (5일/6일) | ~2019년 3월 31일까지 수,목,토,일요일 출발 | 699,000원~
- 4 대만(3일/4일) | ~2019년 3월 31일까지 월~금요일,일요일 출발 | 599,000원~
- 5 러시아 블라디보스톡(3일/4일) | ~2019년 3월 31일까지 수,금,일요일 출발 | 499,000원~
- 6 Batam&싱가폴(5일/6일) | 12월 24일부터~2019년 2월 27일 까지 | 1,199,000원~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지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후원 | KORAIL 광주본부